KÓKKOS

2020 JAN
VOL. 214

새 해 , 새 총학 , 새 출발

1 월 3~4 일 송능중앙교회에서 제 36 대 하다 총학생회 임원단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 헌신을 통해 최고의 총학생회로 거듭나겠다는 결의의 모임을 가졌다 .

(▲ 맨 뒷줄 왼쪽부터 , 전규환 총무 , 김진 언론홍보부 차장 , 이지민 행정지원부 차장 , 박범찬 대외협력부 차장 , 김덕기 예배섬김부 차장 , 유희창 열린복지부 부장 , 고영욱 대외협력부 부장 ▲ 가운데 줄 , 박대주 부총학생회장 , 이예인 예배섬김부 부장 , 김재은 회계 , 황다정 대외협력부 차장 , 박수현 열린복지부 차장 , 정유경 서기 , ▲ 맨 아랫 줄 , 성민창 행정지원부 차장 , 이경찬 행정지원부 부장 , 박보미 언론홍보부 부장 , 박하은 언론홍보부 차장 , 김유경 열린복지부 차장 , 윤예진 예배섬김부 차장 , 남유진 총학생회장)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교직원

동계 '영적 리더십' 워크숍

「나의 증언」 독서회로 설립자의 이념 되새겨

▲ 한성열 교수가 '리더쉽과 기독교 인성' 에 관해 특강중이다.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2019 년도 동계 영적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 이 16~17 일 강원도 속초 금호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성서공동체로서 정체성 확인과 신앙인의 자질함양에 필요한 특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장애의 이해 교육 등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왜 한국성서대학인가 ?」 「왜 우리는 여기에 있나 ?」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대학의 이념은 어떻게 실현되나 ?」 라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진지하게 전개 되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직원의 좌표 설정을 위해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의 자전적 기록 「나의 증언」 을 가지고 조별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형극의 길을 걸어간 일립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 주는 것이고 교직원들도 영적지도자로서 이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주아 (간호) 교수는 수고와 슬픔을 몸소 견뎌온 일립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고 발표하였다. 장현진 (영보) 교수는 한반도복음화를 위한 「천국운동 50 년 계획」 이 지금의 풀뿌리 교육기관 (어린이집) 과 연계된 기독교적 교육실천의 현장이었다며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한성열 교수 (현 고려대 명예교수, 문화심리학) 의 특강 '리더쉽과 기독교 인성' 강연은 가장 위대한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을 쉽고 분명하게 풀어 주었다. 그는 상담을 하는 이유는 피 상담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 11:28) 을 덜어 주는 것이고 그 방법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잡수시고, 마음을 움직여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강 후 많은 토론자들은 한 교수가 상담을 이야기 하고 있었지만 실은 「복음전도」 를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견을 말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김형미 (영보) 교수가 '장애의 이해, 원영희 (사복) 교수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교직원 필수 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도 (김향주 강사 SAY 폭력예방지원센터) 이어졌다.

영적리더쉽 프로그램에는 100 여명의 교수와 직원이 함께 했다.

미니설교

주어진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기 (신명기 31 장)

박성환 교수(성서학과)

『 죽 음 의 수 용 소 』 (Man' s Search for Meaning) 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프랭클린 박사의 체험 수기다. 프랭클린 박사는 강제 수용소에서 주어진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며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본문의 모세도 삶의 종착역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다 (신 31:2,14,16,29).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의미를 부여해 살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남은 인생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설교와 율법서로 (신 31 장), 노래까지 만들었다 (신 32 장).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로 축복한다 (신 33 장). 진정, 모세는 남은 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세처럼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오늘뿐이다." 또한 "우리가 보낸 무의미한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일지 모른다."

2019 년 6 차 이사회 반종원 이사장 선임 강우정 총장 연임

조혜경 교수 등 4 명 교수 승진

▲ 반종원 이사장

▲ 강우정 총장

2019 년도 제 6 차 이사회가 12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개최돼 이사장 및 총장 선임을 비롯해 교원의 승진 및 정관변경 안건 등이 처리되었다.

6 차 이사회는 김창원 이사장이 이번 임기 말 (2020.5.22) 로 짐을 내려 놓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호선방식에 의해 반종원 (수원침례교회 담임 , 31 회) 목사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 년 2 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 강우정 총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학교 발전에 힘써 달라며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 7 대 총장으로 연임 된 강 총장의 임기는 2024 년 2 월 28 일까지이다.

이사회는 또 조혜경 (영보) 교수 외 3 명을 부교수에서 교수로 , 조교수 김정숙 (간호) 외 3 명을 부교수로 승진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승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 조혜경 (영보) ▲ 최영태 (성서) ▲ 강규성 (성서) ▲ 김희수 (사복)

◆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 김정숙 (간호) ▲ 김성호 (사복) ▲ 고미숙 (간호) ▲ 한진호 (기초)

2018 우리대학 취업률 72.9% 서울권 최고 수준

전국 대학 평균 64.2%, 영유아보육학과 100% 취업

▲ 취창업센터 문지예 컨설턴트가 학우의 취업을 상담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2018 년 졸업생 취업 결과가 72.9% 로 27 일 최종 확인되었다. 이번 취업률은 전년도 취업률 76.8% 과 비교해 3.9%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4 년제 대학 취업률 경쟁에서 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이는 2017 년 76.8% 와 2015 년 73.4% 에 이은 역대 3 위에 해당된다. 확실한 랭킹은 1 월 (10 일 예정) 대학공시 정보 사이트인 ' 대학알리미 ' 에 타 대학 취업률이 발표되면 알 수 있다.

교육부는 2018 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전국 4 년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64.2% 라고 발표했다. 서울지역은 67.1% 에 머물러 우리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17 년) 에는 서울지역에서 1 위를 (수도권 4 위) 기록하였다.

박성범 취 · 창업센터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 청년세대 취업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일궈낸 결과이다. 제자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발 벗고 나선 우리 교수님들의 헌신과 땀의 결정체이다.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 고 말하였다.

박 센터장은 올해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유지취업률 상승 (2.9%) 과 영보학과 100% 달성이라고 말하였다. 유지취업율 2.9% 상승도 큰 폭의 반등을 예고하는 좋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 영보학과 100% 공시취업률은 우리대학 취업통계 조사 이후 처음이다. 100% 취업 결과는 학우들의 결단 , 학우와 교수 사이의 신뢰 등 표시 할 수 없는 여러 면의 완벽성 때문에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46 명 발전기금 115 계좌

▲ 강우정 총장에게 후원약정서를 전하는 양연주 학과 대표 (왼쪽부터 고미숙 학과장 , 강제원 , 최송희 학우 , 강우정 총장 , 양연주 대표 , 김은호 부총장 , 전영호 대외협력실 직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46 명 학우들이 13 일 학교를 떠나기 전 후배사랑과 학교 발전의 염원을 담은 후원약정서 115 계좌를 강우정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양연주 학과대표는 " 우리 동기들 모두가 성서대학 4 년을 통해 질적으로 크게 성숙할 수 있었다. 그동안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제 학교를 떠나가지만 남은 후배들과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 모두 마음을 모으게 됐다 " 며 소감을 말하였다.

고미숙 학과장은 " 후배와 학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보여준 4 학년 졸업반 학우 모두가 정말 대견하고 고맙다 " 며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주길 기원하였다.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 획득

한국대학평가원
실험실습실 ‘미충족’ 보완해야

우리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2 주기 '2019 하반기 대학기관인증평가 ' 에서 ' 인증 ' 을 획득하였다 . 다만 실험실습실 면적 미충족 부분은 2 년 내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5 년간 유효하게 되는 조건부 인증이다 .

미충족된 부분은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영역의 ' 실험실습실 ' 크기이다 . 평가위원들은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실 크기가 기준에 미달 한다고 판정하였다 . 평가감사실 (실장 김인화) 은 지난 1 주기 평가 때에도 동일한 ' 실험실습실 ' 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부분이었다며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1 주기 평가와 2 주기 평가는 독립된 평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 ' 이라며 우리대학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사무관리팀은 평가원 결정을 수용하고 ' 실험실습실 ' 을 기준에 맞게 조성하기로 하였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에는 자기점검 기회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과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이다 . 또한 정부 행 ·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

인증 평가의 6 개 필수평가준거는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전임교원 확보율 (61% 이상이 되어야함 . 이하 같음), 교사 (校舍) 확보율 (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80%), 교육비 환원율 (100%), 장학금 비율 (10%) 이며 , 이 ( ) 안의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에서 제외한다 .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다시 5 개 평가영역을 가지고 평가한다 . 5 개 평가영역은 1. 대학이념 및 경영 2. 교육 3. 교직원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이다 . 각 영역을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모든 대학은 5 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 대학은 이번이 두 번째 평가이다 .

이번 평가에는 68 개 대학이 신청 , 그 중 54 개 대학 ' 인증 ', 11 개 대학 ' 조건부 인증 ', 2 개 대학 ' 인증유예 ', 1 개 대학 ' 불인증 ' 으로 판정을 받았다 .

간호학과 ‘인증’ 획득

간호교육인증평가 , 2025 년까지 유효

우리대학 간호학과 (학과장 고미숙 교수) 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해 시행하는 2019 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 의 ' 인증 ' 을 획득하였다 . 이번 인증으로 우리대학은 2025 년까지 간호교육인증평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고미숙 학과장은 인증획득에 대해 " 성서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기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이번 평가는 우리대학 간호학과 교육 전반의 질적 우수성이 외부시각을 통해 검증되었다 . 우수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정립시켜 갈 것 " 이라며 협력과 수고를 다해준 교수와 재학생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진행한 간호인증평가는 간호교육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이 배출되도록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이뤄지도록 간호교육의 질적 관리 및 이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담고 있다 .

평가는 사전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현지방문평가로 진행됐다 . 교육기관의 비전 및 운영체계 , 교육과정 , 학생 , 교수 , 시설 및 설비 그리고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 지난 10 월 24~25 일까지 이틀간 방문평가가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평가단은 비치자료 확인과 검토 및 재학생 면담과 만족도 조사 , 실습장 현장 확인을 비롯 , 기자재 여부와 4 학년 재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등을 강도 높게 검증한 바 있다 .

판정유형은 인증 , 인증불가 , 한시적 인증으로 나뉘며 인증에는 5 년과 3 년으로 나뉜다 . 개정된 의료법 제 7 조에 의하면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

이정혁 학우
영예의 스룹바벨상 수상
2 월 학위수여식에서

▲ 이정혁 학우

지난 4 년간 BRC 에서 도우미로 헌신한 이정혁 학우가 2020 년 2 월 졸업식장에서 영예의 스룹바벨상을 수상한다.

이정혁 학우는 신입생 시절 자신이 BRC 1 년 과정을 통해 크게 성장됨을 느꼈고 감동이 컸던 만큼 후배를 돕고 싶어 나머지 3 년을 그들과 함께 했다. 그는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큰 힘과 도전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BRC 는 성서학과 존재와 자긍심의 근본임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역대 스룹바벨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8 년** ▲ 김예지 ▲ 김환 ▲ 김윤영

◆ **2019 년** ▲ 이주은 ▲ 이예은

"경건과 절제의 성결함을
삶으로 보여야"
2 학기 종강예배 , 유정선 교목실장 설교

▲ 유정선 교목실장

2019 년도 2 학기 종강예배가 13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유정선 교목실장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유 1 장)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 힘써 싸웠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는 주님의 주되심과 권위 그 자체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속한 형제자매이다. 방학기간에도 믿음과 기도 사랑 안에서 경건과 절제의 성결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학우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을 통해 "우리 대학이 아직도 성서대학인 것이 감사하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다. 우리의 등불은 우리의 삶이다. 삶으로 주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흑암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대학이 최후 보루로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대진 총학회장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 한해 믿음의 삶을 잘 이어왔다. 방학기간에도 주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감사와 영광이 임하게 해 달라며 기도하였다.

"BRC 는 성서학과
존재와 자긍심의 근본"
BRC 과정 완주 ,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

▲ 김현광 교수

성서학과 1 학년 학우들의 2019 학년도 BRC (Bible Reading Class) 가 6 일 최종 마무리 됐다. 지도 교수 김현광 교수 (A 반 32 명) 와 김승호 교수 (B 반 36 명) 그리고 이들을 돕고 섬겨준 선배 도우미 13 명이 현장의 주인공들이다.

김현광 교수는 "성경 1 독의 장정을 마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감 없이 믿고 전할 말씀' 제목으로 "세상에는 핍박 받으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다. 성서학과 생으로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도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을 더 읽고 들으며 지켜 행하는 복된 성서인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학우들은 이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 장 21 절을 우렁차게 합독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3 월 4 일 창세기 1 장 1 절의 "태초에 ..." 를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전체 1,189 장이 종착점에 닿은 것이다.

배선아 학우는 간증을 통해 "평소 저녁형 인간이던 내가 BRC 과정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침을 깨워 주셨다. 놀랍고 감사하다. 조장으로 함께 해 준 도우미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며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한 은혜의 1 년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2020 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3.91:1
컴소 8.20:1, 지난해 이어 가장 높아

2020 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91:1 의 경쟁률 (전년도 3.99:1) 로 최종 마감 되었다. 전체 58 명 모집에 227 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정원 내 경쟁은 4.75:1 을 기록, 전년도 4.26:1 과 비교해 소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정원내 학과별 경쟁률은 컴소가 8.20:1 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위를 보였다. 사복 7.80:1, 간호 7.64:1 순이었고 영보 5.60:1 에 이어 성서학과가 1.29:1 을 보여줬다.

전기 편입학 원서접수도 함께 진행됐는데 32 명 모집에 137 명이 지원, 4.28: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편입경쟁은 전년도 3.00:1 과 비교해 올해는 대폭 상승 (+1.28) 하였다. 일반 편입과 학사편입 모두 간호학과가 9.20:1 과 12.33:1 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신지수 입학팀장은 " 서울시내 15 개 주요 대학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 (6.03:1 → 5.56:1) 하였고 우리와 같은 소규모 종교계 대학들의 사정도 이와 비슷할 만큼 입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 우리는 성서공동체의 도움과 기도로 응원해 준 덕분에 전년도와 비슷하다 " 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시 및 편입지원자들은 1 월 20 일 면접을 거치게 되며 최종 합격자 는 2 월 3 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019 송년감사예배
“화평을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게”
김은호 부총장 설교

▲ 김은호 부총장

2019 송년 감사예배가 31 일 오전 12 시 복음관 회의실에서 60 명의 교직원과 함께 진행되었다. 김은호 부총장이 ' 위로부터 난 지혜 '(약 3:13~18) 로 송년 말씀을 전했다.

김 부총장이 "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유기적인 공동체 " 이다. 한 해를 마감하며 혹시 모를 서로에 대한 감정표출과 질투 및 이기심 등의 땅에 것은 벗어야 한다.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인 용서, 화해, 배려, 양순, 사랑 등이 스미도록 마음을 열자. 주님은 화평을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용서와 배려의 마음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꽃 피게 하는 2020 년을 맞이하자 " 고 강조했다.

권경만 기획실장은 2019 년 한 해를 자율개선대학의 시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순종과 겸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위로의 향기가 피어나는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해 달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침묵의 기도를 통해 신앙인으로써 어긋난 삶의 흔적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따라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직자 , 교직원
수당 반납
학교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돕기 위해

김은호 부총장 등 보직자 7 명과 양희정 사무관리 팀장 등 11 명이 자신의 직급 수당 1 개월분 전체 금액 1 천만 원을 전액 후원하였다.

양희정 사무관리팀장은 "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재정에 비상등이 켜지는데 올해는 유독 심각해 괴로웠다. 부서 팀장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할 때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아 결행하게 됐다 " 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부총장 등 보직교수들도 동참의사를 표시하였다.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우리와 같은 소규모대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의 설립이념인 「복음전도자」 양성에 동조하는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원영희 교수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선임

국내 노인관련 최대 학술단체

▲ 원영희 교수

원영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제 12 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20 년 1 월부터 2 년간이다. 연합회는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 개 학회로 구성되며 회원 수 1 만 5 천명에 달하는 국내 노인관련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다. 국제노년학 · 노인의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원 교수는 "인구고령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다각적이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합회가 통합적 관점에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저력을 견인하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행에 옮기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 교수는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노년학포럼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 한국노년교육학회 이사.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환석 팀장 우리회 신임회장

▲ 임환석 회장

교직원들의 모임인 우리회가 23 일 정기총회에서 2020 년 신임회장에 임환석(전산지원)팀장을 선출하였다.

임환석 신임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책을 맡게 돼 부담감을 느낀다. 작은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고 함께 배려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부회장 최지은(도서관)팀장, 총무 전영호(대외협력실)직원, 회계 이소연(교학팀)직원이 임명돼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신영자 관장 퇴임
최하위권을 최정상권으로

"월계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한 17 년 삶 가운데 제일 행복했다"

▲ 신영자 관장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신영자 관장 정년퇴임감사예배 및 퇴임식이 13 일 오후 복지관에서 가족친지와 복지관계자, 직원 및 지역민과 함께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영자 관장은 "월계와 함께한 17 년이 나의 삶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쏟아준 직원들의 노고와 성서대학교를 비롯해 운영진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땀과 기도가 더해져 가능할 수 있었다. 남은 앞길도 주께서 함께해주실 것"이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에 앞서 유정선 교목실장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바울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과 축복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신 관장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펼치게 하였고 그는 월계를 최고의 복지관으로 탈바꿈시켜냈다. 그의 헌신이 지역민 마음속에 주의 온기를 전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소명에 충실한 신 관장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하길"기원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송별사에서 "신 관장이 월계를 그리스도의 숨결 가득한 기관으로 잘 인도해 왔다. 그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한 코람데오 삶을 보여줬다. 앞날에 주의 후한 상급과 감사가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월계의 발전을 염원했다. 최선희 교수가 신 관장은 월계를 선도적 복지기관의 반석으로 올려놓았다.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남은 여정도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동행해 주시길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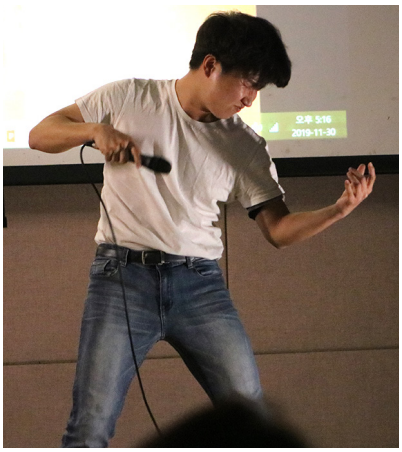
퇴임한 신영자 관장은 지난 2002 년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시작으로 2005 년 관장직을 맡아 17 년간 월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가 부임당시 월계는 서울 시내 최하위권에 머물만큼 열악한 상황. 각고의 노력과 경영전략을 펼친 덕분에 현재 월계의 위상은 국내 최정상권에 속한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 큰 녀석들의 철없는 재롱잔치

"다이나믹 동아리가 아들을 잘 키워줬구나!"

이 글은 우리대학 다이나믹 청춘동아리에서 1 년간 활동을 마친 윤성민 (사복 2) 학우의 부모가 보내온 글이다. 다이나믹 청춘기획단의 연말 'FLY PARTY' (11 월 30 일 토요일) 초청에 다녀오며 받은 감동을 보내왔다.



▲ 장기자랑을 선보이고 있는 윤성민 (사복 2) 학우

"다 큰 녀석들이 철없이 재롱잔치라니 ? 그것도 4 시간을 !" 부모 참석에 매달리는 아들의 간청이 속으로 썩 내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월말과 토요일은 바쁘다. 남편은 설교 준비, 나도 강의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후 3 시, 발표회장인 학교 일립관 101 호에 도착했다. "누구 부모님이시죠 ?" "아, 성민이요 ! 안녕하십니까 !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맞는 다이나믹 팀원 모두 열정과 생동감이 넘쳐난다. 아들 녀석도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 딴판, 세상에 ...? 군대가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가슴을 철렁케 한 여러 기억이 떠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늦으면 예배 도중 회의하러 간다며 지하철로 뛰었던 아들이다.

다이나믹의 그간 행적이 소개됐다. 얼음물 장사, 어르신 경로당 투어, 보육원 아이 봉사, 봉사, 봉사 .. 50 여 사업 대부분이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섬기는 사회적 봉사활동들로 청춘의 열정이 가득했다. 저런 일들을 해왔구나 !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울컥 올라왔다. 연초에는 일본 우토로를 방문한 게 카카오로부터 '올해의 모금함 중 TOP 10' (전체 275 개 모금) 에 뽑혔다는 말에선 부모들의 힘찬 박수가 쏟아졌다. 아들이 허튼짓 한 게 아니었구나 !

참가자 10 명이 부모님을 위해 3 개월 전부터 연습했다는 장기자랑은 백미였다. 각 순서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몸짓이 순수하고 푸르렀다. 아들딸의 진심을 다한 장기자랑에 눈시울 적시는 어머니들이 점점 늘어갔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해왔다는 게 온 몸에서 느껴졌다. 한 여자 학우가 아빠를 향해 "아빠, 꼭 교회 같이 가요." 목소리와 표정이 더없이 간절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고대하던 아들 순서, 퀸이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곡을 패러디한 무대다. "...Mama ....Mama... 밥 줘요. 고기반찬으로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엄마, 알바 끝나고 늦어도 집에 가서 집 밥 먹을래요. 고기반찬이면 더 좋구요." 아들의 말투다. 내 몸 전체로 울컥한 전율이 느껴진다. 갑자기 목이 메어 왔다.

동아리 팀원들은 서로서로 장점을 들춰주고 지지해 주었다. 나도 잘 모르는 면들을 왁자지껄 말하는데 오히려 신뢰감을 줬다. Dynamic 청춘 동아리가 한 것처럼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의 퀄리티 또한 자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솟았다.

손글씨로 각자의 부모에게 쓴 편지가 낭독되었다.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부모님들 가슴에 스며왔다. "사랑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조용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아이들이 참 반듯하게 자라줬음을 봤다. 감사하고 기뻤다. 특별했던 4 시간의 여정은 7 시에 끝났다. 남편과 나는 마치 정말 사랑스러웠던 둘째의 4 살 때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날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최고의 날이었고 성서대학 울타리 안에서 아들과 다이나믹 10 명 모두 반듯하고 건실함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주님, 아론이라는 한 청년을 사용하셔서 다이나믹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성서대학 안에서 학생들에게 귀하고도 소중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너를 믿어줄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Dynamic 동아리, Excellent! "

총장의 편지

제 7 대 총장직을 맡으며 인사드립니다

강우정 총장

성서인 공동체 여러분 !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

법인 이사회가 부족한 저를 한국성서대학의 제 7 대 총장으로 또 다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 감사한 마음입니다 . 그리고 에스겔 1 장 21 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는” 자세로 이 직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때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은 내가 미련한 것을 들어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겠고 연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자를 꺾어 부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 통쾌한 반전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

2000 년 3 월 1 일 총장 첫 날부터 제가 다짐한 것은 '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는 일 ' 이라고 믿고 해 왔습니다 . 오늘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그대로 하겠습니다 . 어떤 이는 세대가 달라지고 그 안에 자라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성향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라 방법은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방법의 기본은 바뀔 수 없습니다 . ' 말씀 , 기도 , 전도 , 예배 , 섬김 ' 의 훈련과 교육은 변할 수 없습니다 . ' 형식 ' 은 껍데기이고 더 나아가면 위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 형식 ' 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반복 ' 이라고 생각합니다 . ' 형식 ' 을 ' 반복 ' 하지 않으면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문화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하나님이 시키신 일 ,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로 시작하는 시편 23 편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달리 있을까요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원수의 목전 등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어서 결과는 항상 승리입니다 . 이 말씀은 한국성서대학의 현실입니다 . 하루하루 삶의 족적 (足跡) 입니다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우리는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 인내는 연단을 ,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롬 5:3–4) 그리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롬 5:5)

저는 앞으로도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 ' 사람도 흠모 (欽慕) 하는 대학 '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한국성서대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이 구호는 두 개의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대학인 것 같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대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 그리고 신실한 「복음전도자」 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 이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최고의 실력자」 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의 시대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우리 대학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꼭 살아 남아야 할 대학입니다 .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교수 컬럼
이은주 교수 (간호학과)

성서대학교에서 맞은 나의 돌잔치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십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백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일립정신은 신앙교육을 통해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 한 설립자의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밀알정신은 한 알의 밀알로써 자신이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정신이며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또 다른 결실을 낳게 하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은 성서대학교 구성원이 된 제가 1 년 간 지속적으로 생각해왔고 이젠 소중한 가치로 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립정신과 밀알정신의 실천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매일 예수님과 교제로 한걸음씩 동행하는 삶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 길을 결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성(罪性)과 투쟁을 거쳐야 일립, 밀알 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의 삶이어야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서공동체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교직원 선생님의 믿음 가득한 눈빛과 격려가 가슴 속에 사랑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밀알 훈련에서 믿음의 군사로 섬김을 보여준 목사님들과 학생 어벤져스의 헌신도 잊지 못합니다. 힘내서 함께 걷자고 격려해 준 동기 교수님들과 적응하느라 그동안 고생했다며 선배 교수님들이 차려 준 돌잔치 상도 진한 여운을 줬습니다. 지체들의 미소와 사랑 … 그리고 헌신 ..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성서공동체 안에서 나를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한걸음씩 걸어 봅니다.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가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곳의 귀한 인연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외래교수 컬럼
홍기숙 교수 (애타주의 : 상호성의 원리)

하나님은 꼬불꼬불한 선을 따라 곧게 쓰신다

프랑스의 현상학자 레비나스가 『윤리와 무한』 이라는 저술 속에서 포루투갈의 한 격언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폴 클로델의 희곡 『새틴구두』(1929) 표지에 나오는 격언이다. 이 희곡이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오래된 영화 〈 비단구두 Le soulier de satin〉(1985) 의 원작이다. 아마도 영화 마니아들은 포루투갈의 이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좀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여러 해 동안 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이 격언은 " 하나님은 꼬불꼬불한 선을 따라 곧게 쓰신다." 라는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다.

이 짧고도 간단한 문장은 레비나스에 의해 무한의 외재성이 나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 나에게 명령함으로 내재성이 됨을 역설하기 위해 사용된다. 레비나스는 동일성의 철학인 있음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타자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윤리학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제 1 철학인 형이상학의 자리에 존재론이 아닌 윤리학이 와야 한다는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 대한 응답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복잡하고 난해한 프랑스의 한 유태인 철학자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이 포르투갈 격언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레비나스 이야기는 이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하나님은 꼬불꼬불한 선을 따라 곧게 쓰신다." 라는 격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8 장 28 절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가 아닐까 ?

우리 눈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길이, 험하고 가파른 골짜기가 사실은 주님이 예비하신 곧은 길이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꼬불꼬불한 길로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최단코스로 이끄실 그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 이 땅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향해.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사람을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건물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쉬운 건 '초창기 때 작은 건물이라도 교회가 사용할 공간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니엘 홀을 만든 이유도 그런 믿음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건물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좀 더 성경적인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세부적으로는 한국성서대학교와 성서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군대는 군인을 키워야 하고 나라는 인재를 키워야 하듯이 교회는 복음의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를 아는 교수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는 전담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교인 대비 교역자의 숫자가 평균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신대원 재학 중인 교역자의 모든 학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격이 되면 유학도 보낼 겁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들이 알바형식으로 사역에 임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응시도 말고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목회나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지만 충성은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키워야 하고, 그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을 세워가야 하나요? 그 답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바라 볼 분은 주님밖에 없었고, 신실하신 주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어느 날 보니 겨자씨처럼 큰 가지를 내고, 그 안에 새들이 쉬는 위대함으로 자라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대학교회입니다. 성서대학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6

사명선 _ 작사 작곡 / 조영준 _ 노래 / 시와 그림

난 죽어도 내가 가야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 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https://blog.naver.com/hopyeong1125/221567259048

바다로 가려면 먼저 배를 묶고 있는 끈을 풀어야 한다. 끈을 풀었다면 이제 닻도 들어올려야 한다. 잠시 머물러야 할 곳에 마음마저 머물러 오래 안주한다면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배는 나아갈 수 없다. 그러기에 배는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뜨거운 땡볕에서 허기진 숨을 몰아쉬며 언약의 때를 기다린다.

드디어 밀물이 밀려온다. 끈도 풀고 닻도 들어 올렸다. 돛도 달았고 노도 준비되어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저 푸른 바다로 나아간다.

대학 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율동과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22 일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축하예배를 가졌다. 성탄예배는 이기훈 목사의 말씀에 이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멋진 율동과 노래가 더해지며 막을 열었다. 각 반별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며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아름다운 과정이 무대에 펼쳐졌다. 가사에 적합한 율동과 합창이 잘 조화되었고 멋진 의상과 조명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 교사와 아이들 모두는 성탄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한 시간이 됐다. 참석한 학부모들도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예수 탄생에 긍정적 시각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함께 참여하는 성탄예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랑반 교사 이다솜]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강우정 총장이 신영자 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년퇴임식

지난 13 일 신영자 관장의 정년퇴임식이 월계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신영자 관장은 퇴임사에서 기관 운영에 도움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65 년 인생에 월계복지관과 함께 한 시간이 황금기였다는 고백이 장내를 뜨겁게 하였다. 이날 참석한 내빈과 복지관 직원 모두는 신 관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펼쳐갈 인생 2 막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하길 기원했다.

퇴임식을 통해 신 관장의 사회복지 24 년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17 년을 통해 자신의 사회복지 전체가 명예롭게 마무리 되었다. 현장에는 가족 및 친지와 한국성서대학교 교직원, 노원구 유관기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후원자 등 100 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오동준 부장이 관장에 선임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게 된다. **[사회복지사 최미정]**

꿈빛 어린이집

▲ 다양한 촉감의 종이를 찢으며 오감을 발달시키고 있는 유아들

오감놀이

지난 13 일 만 2 세 영아들은 '종이'를 주제로 하는 오감활동을 부모와 가졌다. 그동안 매달 진행되던 오감놀이를 정리된 영상과 사진으로 감상하고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영아들은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까르르 웃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즐겁게 임했다. 유아들은 부모님과 다양한 촉감의 종이를 찢고, 구기고, 던지며 손과 온 몸으로 탐색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손으로 찢은 종이를 부채를 이용해 날리는 과정과 여러 모양으로 변한 종이의 탐색 및 습자지를 활용한 사탕목걸이 만들기가 시선을 끌었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감놀이하는 날이면 재미있어 한다"고 전했다. 오늘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해된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민들레반 교사 김은솔]

성서 대학교회

▲ 공연하고 있는 창작합창뮤지컬 창수의 크리스마스

성탄감사예배

성서대학교회는 22 일 성탄주일예배와 25 일 성탄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영광과 찬미를 드렸다. 22 일 주일 오후,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연합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축하 발표회를 가졌다.

25 일 성탄절에는 창작합창뮤지컬 '창수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하였다. 연합으로 제작한 뮤지컬에 성도들은 은혜와 감사를 맛볼 수 있었다. 연합성가대의 칸타타 선율이 함께 더해지며 다시 한 번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전해졌다. 유아세례를 통해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를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다짐에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이 됐다.

[목사 김문응]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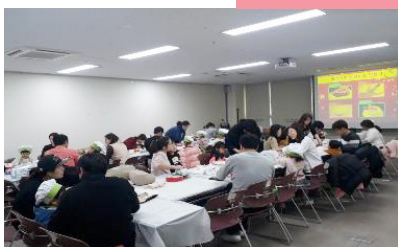
▲ 어린이들이 송별 특별한 발표회를 하고 있다.

2019 년 송별 특별한 발표회

지난 12 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 상계백병원 어린이들의 특별한 발표회 ' 를 진행하였다. 만 4 세 친구들의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만 2 세, 3 세의 노래와 율동 그리고 합주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발표회의 하이라이트는 만 3~4 세가 합동으로 펼치는 무대 ' 빗방울들의 여행 ' 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유아반 친구들의 화려한 우산 퍼포먼스와 직접 만든 율동이 의미를 더해줬고 만 4 세 어머니들의 ' 수화로 부르는 풍선 ' 노래가 수료하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순간을 선사해주었다. 참석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크게 감동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발표회가 지난 1 년을 통해 우리아이들의 성숙함을 확인하고 부모들의 양육에 감사와 격려를 나눠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푸른반 교사 이수현]**

노원구육아종합 사회복지관



▲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케익을 만들고 있다.

함께해서 기쁜 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 월 7 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가족 대상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 (함께해서 기쁜날) 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가족과의 친밀한 접촉점을 높여 서로에게 감사와 소중함을 갖게 하는 시간이다. 행사에 앞서 사전 상황이 허락된 총 28 가족, 74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 목적에 적합한 관계증진을 높여 줄 특수체육 등을 택하였고 가급적 가정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놀이위주의 과정으로 호응을 불러왔다. 또한 맛있고 멋진 성탄축하 케익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끼리 재료를 탐색 후 가족만의 특별한 케익으로 서로에 대한 존재감과 친밀감을 함께 높여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과 감사를 높여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수교사 김선화]**

상계5동 어린이집

▲ 학부모와 진행된 크리스마스 파티의 한 장면

2019 년 크리스마스 파티

지난 16 일, 17 일 본 어린이집은 만 1~5 세 반 별로 '크리스마스 파티' 를 가졌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각 반 별로 부모와 아이들이 지난 1 년간의 활동상을 감상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감사와 추억을 쌓도록 기획하였다. 운영은 각반별 재능기부형식으로 펼쳐졌다. 레크리에이션 진행과 아이들의 노래공연, 게임,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가 이어지며 개성 넘치는 크리스마스 열기를 뿜어냈다. 각 반별 학부모 전원이 참석할 만큼 관심과 기대감도 높았다. 학부모들은 '먼저 반별 부모님들과 만나서 좋았고 아이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를 나타냈다.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학부모가 여러 형태의 교육에 참여해 아이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

[예쁜꽃잎반 교사 강혜진]

늘사랑 어린이집

▲ 산타할아버지가 영유아들에게 성탄선물을 전하고 있다.

행복한 성탄절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23~24 일까지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였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 겨울이야기 ' 학습에서 즐거움을 만끽하였고 오후에는 산타 과일꼬치를 만드는 요리활동시간으로 기쁨을 연속 이어갔다. 영유아들은 과일과 토핑 재료로 산타클로스 형상을 만드는 요리활동시간에서 높은 집중도와 만족감을 드러냈다.

24 일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산타행사를 가졌다. 산타복장을 처음 접한 일부 영유아가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다. 학부모들은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을 맛보여줬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늘사랑어린이집은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가 즐겁게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갈 예정이다. **[즐거운반 교사 김한솔]**

충무 어린이집

▲ 성탄을 축하하며 영유아들이 율동과 멋진 노래를 발표하고 있다.

즐거운 성탄절

지난 19 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성탄 행사가를 진행되었다. 일차로 교실을 산타할아버지 만나기, 부모님과 함께 비누 만들기 방으로 구성했다. 영유아들은 산타할아버지 방에서 인사 후 선물 받는 즐거움도 가졌고 부모님과 함께 비누 만드는 작업을 통해 향기로운 추억도 쌓았다. 또한 각 반별로 지난 1 년 동안 준비한 작품을 전시해놓아 부모들이 대견한 시선을 갖는 즐거움도 선사하였다. 부모들도 자녀의 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추억으로 간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들이 준비한 멋진 발표회가 이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탄을 축하하는 멋진 율동과 노래를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교사들에게 성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나타냈다.

[교사 유슬기]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국민은행 노원지점	2000만원(운영)	유지훈(동문)	100만원(장학)
강우정.강진(총장)	627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1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권은지 김무엘 마음교회
배혜인 백명희 서희영 양은숙
유영진 이채녀 지영환 최규봉
2구좌 김순덕 이기용 정 완
3구좌 이우진 한 별
4구좌 신상춘
5구좌 박광필 조준식 하승훈
8구좌 유지훈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은실 전귀선 하희수
5구좌 안미란 최선희
6구좌 이성아
10구좌 김정원 정순례
20구좌 최영태

동광교회
1구좌 김복례 한미희

비전교회
3구좌 장석원

중앙성서교회
2구좌 신영옥 오근수
3구좌 김옥자
10구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단체 및 기관
1구좌 (주)대우노즐
10구좌 두암산업(주)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박진기 정다운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은지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믿음 김보희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혜인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화진 송성은 송순덕 송유지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용아름 우승연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보아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영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상모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솔 최인호 최정화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경수 박대우 박재송 박지영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용원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익봉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정옥순 정 완 정주영 조성진 조장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권삼희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우선 김종숙 김지애 김태영 김혜진 나예원 남지원 명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미나 서성숙 설보경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이남희 이다윤 이안나 이우진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이현지 이혜민 임보나 장영훈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정재연 조신애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최은희 홍석화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김종남 김준오 김지원 김혜선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안선례 이병철 장은희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정동주
7만원 임연식
10만원 강경옥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기부자 명단

양원석 이부호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50만원 신상춘
100만원 유지훈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은이 김혜미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성인선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소연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이혜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정창금 최진석
2만원 김명숙 김애라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김형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10만원 이상학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아라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승민 김영직 김지성 김창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양윤식 윤경민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상일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은상 정지용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진달래 하희수 허윤민 황찬범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호섭 임현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영은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덕원 김미숙 김성호 김은영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추연진 한요게벳
5만원 구성빈 구성연 권순범 김덕현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장정순 최사랑
6만원 이성아 임환석
9만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강혜민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안정선 오은주 원영희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1만원 김종완 최지은
12만원 김웅기
13만원 강규성 한진호
15만원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강동 이소정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임지영 최선희
42만원 박성범
50만원 유정선
627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호한나
2만원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지혜 장나혜 장수진 탁지혜 한송이
4만원 박미선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이인경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정나나
25만원 신영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20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2천5백원 강은혜 신재은
5천원 김겸일 송형기 안영숙 양천식 정갑순 최용석
1만원 강경혜 강규성 강유진 권경만 권정숙 권정화 권태완 길용희 김덕현 김동선 김동수 김동준 김미선 김민자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영헌 김원태 김인영 김인자 김지영 김지윤 김진숙 김현미 김혜옥 김혜진 박세건 박영신 박용숙 박이숙 박천순 방미경 서 욱 손진희 송인희 심애경 양순정 오경모 오경원 용정자 유상호 유은주 유정선 유형창 이가은 이노선 이대영 이대한 이상록 이선정 이영진 이영희 이윤봉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지수 이진호 임성일 임숙정 전광심 전옥순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정도유 정명수 정승연 정현숙 정희선 조건희 조병하 조성민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조혜경 최대만 최명순 최진두 한성실 한진호 황서린
2만원 김배열 박인숙 박정하 박태수 박혜영 신인옥 오윤아 윤영원 윤영원 이길우 이봉호 홍기순
2만5천원 김병철 김성진 김희자 남지영 박 선 백순옥 신양금
3만원 김애숙 김윤선 김정숙 류 강 박진석 장근문 허진순
3만5천원 이숙영 장혜린 정선희
4만원 김은미 이관영 이주현
4만5천원 김일선 이낙영
5만원 곽규상 김영숙 김향순 김현석 박주형 이은실 전명진 조지선 최순남 하명란
5만5천원 고경숙 김웅기
27만5천원 박은유
61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일섭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한금례 김종구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한현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오미애
13만5천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60만원 최병규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동신자원/성복중앙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금곡광염교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리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미사목민교회/상일교회/일동성서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이레E&C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다드림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만나교회/상록교회/생명샘교회(성주)/오감발달연구소
13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서부중앙교회
30만원 구리성광교회/노아인터내셔날/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40만원 도서출판현문사
50만원 예랑회
2000만원 국민은행 노원지점

소계(20191121~20191220)
66,237,610

누계(20190301~20191220)
718,860,722

「성서대학돕기운동」 2019년도 기부현황

지난 한 해동안 성서대학돕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동문 및 가족		김동현	110,000	김중재	220,000	박문용	300,000	성순애	120,000
94학번 성서모임	120,000	김두환	110,000	김지선	120,000	박문홍	120,000	성용제	240,000
강경옥	1,200,000	김명희	100,000	김지애	90,000	박민송	330,000	성한나	120,000
강나경	110,000	김명희	120,000	김지원	240,000	박민수	295,000	소경숙	240,000
강동란	150,000	김무엘	120,000	김지원	350,000	박상수	60,000	손명배	100,000
강명희	30,000	김미나	220,000	김지은	20,000	박성준	110,000	손성원	240,000
강상미	120,000	김미숙	220,000	김지혜	100,000	박수진	120,000	손영화	120,000
강수진	360,000	김미향	240,000	김진	120,000	박순임	120,000	손윤숙	120,000
강순성	220,000	김민겸	120,000	김진경	550,000	박아론	90,000	손주현	120,000
강신용	120,000	김민욱	100,000	김진만	1,200,000	박영근	120,000	손진규	110,000
강애솔	120,000	김민정	20,000	김진영	110,000	박영자	100,000	손혜진	100,000
강영규	100,000	김민정	70,000	김진하	120,000	박예은	50,000	손화진	120,000
강영주	60,000	김민정	120,000	김차욱	30,000	박용준	10,000	송만호	200,000
강은아	120,000	김민호	10,000	김춘덕	120,000	박윤복	120,000	송명훈	100,000
강재현	100,000	김믿음	120,000	김태분	240,000	박은선	20,000	송민규	120,000
강정민	120,000	김병렬	120,000	김태영	210,000	박은지	120,000	송복순	600,000
강정애	60,000	김보라	90,000	김태용	120,000	박재송	240,000	송석배	20,000
강주옥	120,000	김보람	30,000	김필녀	70,000	박재신	120,000	송성은	160,000
강춘자	120,000	김보민	20,000	김하신	90,000	박재윤	120,000	송순덕	1,100,000
강현미	120,000	김보희	90,000	김하은	120,000	박재홍	40,000	송영자	110,000
고난홍	80,000	김복녀	240,000	김학진	5,000,000	박종주	120,000	송유지	100,000
고성호	120,000	김샛별	110,000	김한나	60,000	박주옥	120,000	송인성	200,000
고윤정	20,000	김선근	60,000	김현정	120,000	박주은	480,000	송향숙	110,000
고은영	100,000	김선태	60,000	김현진	90,000	박지영	90,000	송현미	105,000
고재민	40,000	김성경	30,000	김혜선	40,000	박지영	120,000	신경자	110,000
고정균	120,000	김성균	120,000	김혜선	350,000	박지은	20,000	신대민	110,000
고하은	120,000	김성애	120,000	김혜영	120,000	박지혜	300,000	신미선	120,000
공복순	360,000	김성훈	240,000	김혜진	360,000	박진기	50,000	신상춘	500,000
공지은	270,000	김세련	180,000	김화태	100,000	박창대	120,000	신에스더	120,000
공진희	60,000	김세영	100,000	김효래	100,000	박창민	120,000	신은숙	360,000
곽미화	120,000	김세현	120,000	김희태	1,000,000	박철교	120,000	신은진	480,000
곽연희	60,000	김소영	80,000	나선영	120,000	박향식	120,000	신은혜	120,000
구본길	120,000	김수진	120,000	나예원	360,000	박현주	200,000	신정섭	240,000
구본철	100,000	김순녀	240,000	나혜수	120,000	박형택	420,000	신정화	240,000
구세경	110,000	김순덕	240,000	남경숙	120,000	박혜빈	30,000	신종수	120,000
구연민	240,000	김순화	120,000	남범수	120,000	박혜인	120,000	신치선	2,200,000
구진경	110,000	김승용	240,000	남상숙	120,000	박효빈	20,000	신태양	110,000
국소영	240,000	김승현	40,000	남성휘	120,000	반세호	546,800	신혜영	120,000
국용환	400,000	김승훈	120,000	남수연	30,000	반해빈	120,000	신호영	30,000
권귀남	10,000	김승희	110,000	남영란	550,000	반해성	120,000	신호정	1,600,000
권명순	120,000	김시내	15,000	남정부	200,000	방애자	360,000	신화영	230,000
권삼희	210,000	김시내	65,000	남지원	360,000	방지연	120,000	심두한	120,000
권서영	360,000	김아란	30,000	남희경	600,000	배민정	120,000	심순자	120,000
권슬기	120,000	김연수	400,000	노명민	120,000	배성준	150,000	심인자	120,000
권예은	20,000	김연정	220,000	노한나	120,000	배예진	90,000	심희남	120,000
권예은	60,000	김연주	180,000	류수진	100,000	배은휘	120,000	안선례	600,000
권오경	80,000	김연진	200,000	류요한	120,000	배정환	480,000	안현정	120,000
권오규	360,000	김영주	240,000	류정	30,000	배창경	70,000	양광석	120,000
권오찬	50,000	김영태	240,000	류충열	240,000	배혜인	120,000	양미현	60,000
권유철	120,000	김예린	60,000	류희정	110,000	배효순	120,000	양연선	360,000
권은지	120,000	김용길	240,000	마음교회	10,000	백명희	120,000	양원석	600,000
권일화	2,000,000	김우선	270,000	마혜진	240,000	백연옥	240,000	양은숙	120,000
권정인	120,000	김원미	220,000	마효정	120,000	백연주	120,000	양혜경	360,000
권준	90,000	김유미	120,000	맹현진	120,000	백은진	120,000	양혜영	330,000
권지연	70,000	김유진	120,000	명은원	210,000	백해송	120,000	엄보라	110,000
권희조	120,000	김은경	80,000	문기철	120,000	백향목	110,000	엄보영	120,000
금동옥	120,000	김은석	120,000	문반석	20,000	변지윤	120,000	엄조은	50,000
금필규	10,000	김은정	60,000	문성령	120,000	서광진	1,200,000	여지은	120,000
길소윤	200,000	김은주	80,000	문수란	100,000	서규원	60,000	오민지	50,000
김가영	120,000	김은천	100,000	문수빈	100,000	서명주	330,000	오병휘	30,000
김가희	120,000	김은하	240,000	문순일	360,000	서미나	150,000	오상석	200,000
김경란	100,000	김은혜	130,000	문영주	70,000	서미희	100,000	오세천	90,000
김경수	110,000	김응환	120,000	문지수	210,000	서민경	30,000	오은희	120,000
김경혜	120,000	김일준	120,000	문지원	180,000	서성숙	360,000	오인록	30,000
김경화	1,226,724	김일한	240,000	문진아	360,000	서수경	2,200,000	오정순	240,000
김경희	40,000	김장교	1,200,000	문홍철	120,000	서유미	120,000	오찬미	20,000
김기옥	240,000	김재원	240,000	민승철	360,000	서정민	120,000	오찬미	30,000
김남웅	2,000,000	김재한	110,000	민이삭	55,000	서지혜	120,000	오찬양	60,000
김다솔	110,000	김재현	120,000	민정은	110,000	서현	80,000	오채엽	120,000
김다예	360,000	김정례	120,000	박경수	120,000	서희영	120,000	왕보현	100,000
김도훈	120,000	김정훈	220,000	박경옥	120,000	설경수	10,000	왕용분	240,000
김동관	600,000	김종남	550,000	박광필	600,000	설보경	360,000	왕지희	30,000
김동교	360,000	김종숙	360,000	박기혁	360,000	설에스더	120,000	용아름	80,000
김동원	330,000	김종우	100,000	박대우	240,000	성경순	10,000	우승연	120,000
김동택	50,000	김준오	200,000	박명우	120,000	성낙표	240,000	우종엽	50,000

2019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성 명	기부액
우현아	50,000	이옥희	10,000	전미영	110,000	채수현	90,000	강세윤	1,500,000
원윤희	110,000	이용원	120,000	전병민	120,000	채유신	120,000	강정희	120,000
유미정	120,000	이용철	120,000	전병준	110,000	채종원	120,000	강하늘	119,000
유보아	70,000	이우진	210,000	전상호	120,000	천유림	550,000	고병재	15,000
유상민	30,000	이유미	240,000	전소영	90,000	최광희	360,000	고예안	5,000
유선미	1,320,000	이유진	220,000	전아름	120,000	최규봉	110,000	고희자	100,000
유소담	100,000	이윤정	160,000	전아영	120,000	최대만	100,000	곽지안	35,000
유수정	20,000	이윤주	120,000	전영이	360,000	최민영	40,000	구혜경	65,000
유순희	240,000	이은실	90,000	전영희	240,000	최상모	120,000	권명희	100,000
유양숙	120,000	이은실	120,000	전예지	120,000	최서희	120,000	권순길	120,000
유영진	120,000	이은애	140,000	전유진	30,000	최선경	120,000	권은지	35,000
유예진	150,000	이은영	110,000	전은진	600,000	최선옥	240,000	기병문	40,000
유윤상	40,000	이은정	30,000	전지혜	360,000	최소린	360,000	김경남	50,000
유정례	10,000	이은지	40,000	전택복	240,000	최수연	20,000	김경식	500,000
유주홍	120,000	이은혜	30,000	전한나	90,000	최수지	240,000	김명숙	200,000
유지영	120,000	이의선	240,000	전혜영	20,000	최승주	120,000	김민아	120,000
유지혜	10,000	이재국	330,000	정금숙	120,000	최승진	120,000	김민주	5,000
유지훈	1,000,000	이정목	240,000	정난경	120,000	최아란	120,000	김석정	120,000
윤가영	30,000	이정숙	120,000	정다연	60,000	최예린	210,000	김선경	100,000
윤광길	220,000	이정은	7,500	정다운	60,000	최예본	100,000	김선주	500,000
윤보은	50,000	이정익	120,000	정다운	110,000	최예슬	120,000	김선주	500,000
윤솔이	80,000	이정훈	120,000	정도량	1,000,000	최은비	10,000	김성순	30,000
윤영원	120,000	이종근	50,000	정동주	720,000	최은희	180,000	김성안	500,000
윤예서	50,000	이종임	240,000	정선도	120,000	최인경	240,000	김아름	5,000
윤정숙	10,000	이주연	360,000	정선희	120,000	최인호	100,000	김애라	160,000
윤정숙	110,000	이주희	80,000	정성종	240,000	최정화	10,000	김양순	100,000
윤지준	120,000	이지연	180,000	정성희	120,000	최종운	120,000	김예은	5,000
윤혜자	110,000	이지은	240,000	정슬기	330,000	최준혜	100,000	김예지	15,000
이경선	60,000	이진경	120,000	정연오	120,000	최진희	120,000	김윤옥	60,000
이경희	20,000	이진리	110,000	정영교	120,000	최하나	1,090,000	김윤정	360,000
이광석	110,000	이진우	60,000	정영용	120,000	최혜림	120,000	김은선	300,000
이구영	220,000	이진주	30,000	정예나	100,000	최호정	220,000	김은이	120,000
이근중	120,000	이창호	110,000	정옥순	200,000	탁국현	120,000	김은혜	5,000
이기용	20,000	이채녀	120,000	정완	520,000	탁명화	180,000	김재임	360,000
이기주	220,000	이철승	120,000	정윤경	120,000	태지선	30,000	김제형	5,000
이남희	360,000	이춘석	120,000	정윤주	60,000	하석실	100,000	김종호	500,000
이다윤	330,000	이충희	240,000	정은숙	30,000	하수현	120,000	김지원	5,000
이도훈	120,000	이학준	110,000	정은영	20,000	하승훈	450,000	김현숙	240,000
이두현	120,000	이현무	100,000	정은혜	150,000	하지혜	200,000	김형태	600,000
이례장학	12,000,000	이현섭	120,000	정인철	120,000	하진	80,000	김혜미	80,000
이만수	120,000	이현지	90,000	정재연	330,000	하진우	120,000	나유나	20,000
이명호	120,000	이현지	120,000	정주영	240,000	한경순	120,000	류한나	65,000
이미정	120,000	이혜민	360,000	정지현	120,000	한광희	10,000	르엉티튀짱	5,000
이민우	120,000	이혜선	100,000	정진영	120,000	한민수	160,000	문성남	80,000
이민화	120,000	이혜윤	120,000	정혜문	120,000	한민희	60,000	박기영	110,000
이병주	120,000	이호우	1,200,000	정희영	30,000	한보미	180,000	박대종	120,000
이병철	260,000	이화연	120,000	조경선	60,000	한상장	120,000	박미영	120,000
이병현	80,000	이환기	100,000	조경애	120,000	한솔	60,000	박미혜	30,000
이보아	40,000	이환희	110,000	조믿음	100,000	한원창	120,000	박민희	120,000
이부호	600,000	이희숙	1,000,000	조병수	373,600	한정은	60,000	박윤미	25,000
이상복	240,000	이희윤	120,000	조성진	240,000	허성희	600,000	박은혜	5,000
이상용	120,000	인지혜	100,000	조소연	120,000	허영숙	120,000	박재숙	120,000
이상준	120,000	임남연	120,000	조승희	120,000	허정운	90,000	박재완	360,000
이상진	120,000	임미숙	90,000	조신애	150,000	허정원	350,000	박지성	400,000
이상필	120,000	임보나	360,000	조연정	200,000	허주옥	40,000	박창근	30,000
이석호	120,000	임삼일	120,000	조영자	11,567,480	형공주	10,000	박혜숙	220,000
이선영	240,000	임연식	840,000	조영희	120,000	홍금주	120,000	배정숙	360,000
이선재	140,000	임유미	60,000	조용희	120,000	홍석화	360,000	배정환	100,000
이선희	1,000,000	임은성	120,000	조유진	30,000	홍선호	120,000	서병석	500,000
이성은	240,000	임은진	100,000	조유진	600,000	홍성대	120,000	서성식	240,000
이수경	110,000	임은희	240,000	조은경	120,000	홍애진	120,000	서융	10,000
이수은	30,000	임찬웅	120,000	조은경	180,000	홍예지	240,000	서이현	10,000
이수정	40,000	임창열	120,000	조은별	120,000	홍은희	10,000	서재형	300,000
이수진	120,000	장두성	120,000	조은화	100,000	홍자영	120,000	선동하	100,000
이승희	1,000,000	장명헌	1,200,000	조인순	120,000	홍정심	120,000	선유정	100,000
이신재	120,000	장민호	200,000	조장현	100,000	홍진기	30,000	성인선	50,000
이아람	55,000	장세진	120,000	조태환	120,000	홍진옥	40,000	송기운	30,000
이아름	120,000	장순호	120,000	조현석	100,000	홍현숙	600,000	송승현	30,000
이아름	200,000	장영훈	330,000	조혜진	30,000	황보혜영	240,000	송은라	100,000
이안나	360,000	장윤국	120,000	주민자	120,000	황선명	100,000	신나은	37,000
이영광	120,000	장은희	50,000	주성현	80,000	황승호	100,000	신연정	120,000
이영식	120,000	장익봉	110,000	주영덕	80,000	황영숙	330,000	신영옥	120,000
이영애	240,000	장익심	20,000	주진우	30,000	황예린	270,000	심희정	90,000
이예람	150,000	장재원	220,000	지영환	120,000	황인숙	10,000	안소연	100,000
이예송	90,000	장정인	240,000	진병원	90,000	황중법	35,000	안양희	100,000
이예은	270,000	장희남	90,000	진성지	240,000	황형록	120,000	안정민	35,000
이예지	120,000	전다현	90,000	진태임	170,000			안태유	300,000
이예진	10,000	전명자	90,000	차현정	80,000	재학생 및 가족		엄미자	240,000

2019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 명	기부액
엄시온	20,000
염인형	120,000
오미선	120,000
오승현	5,000
오옥경	240,000
원유민	20,000
유정열	400,000
윤명식	50,000
윤예원	5,000
윤운섭	120,000
윤효심	120,000
이가윤	5,000
이경민	65,000
이금란	10,000
이다혜	30,000
이동기	120,000
이마리	15,000
이명희	100,000
이삭	25,000
이상학	1,100,000
이성란	100,000
이성령	100,000
이성민	10,000
이성은	60,000
이승연	5,000
이영림	240,000
이원혁	50,000
이유신	5,000
이은지	35,000
이은혜	550,000
이재현	500,000
이제우	16,700
이종권	360,000
이종원	60,000
이지은	600,000
이진영	35,000
이하은	15,000
이한나	15,000
이한빈	550,000
이한솔	10,000
이혜린	100,000
이혜진	110,000
이희주	30,000
임동화	120,000
임지수	5,000
장연정	50,000
장영철	90,000
장효승	5,000
전계화	100,000
전명자	100,000
전영준	500,000
전옥순	200,000
전용숙	90,000
전지혜	110,000
정미영	600,000
정서현	100,000
정창금	120,000
정해숙	80,000
정혜민	110,000
조대의	360,000
조현경	40,000
채형찬	30,000
최진석	100,000
최혜진	240,000
한수윤	5,000
허용철	600,000
허은희	5,000
허진선	50,000
홍경희	50,000
홍은선	240,000
황제희	50,000
교직원 및 가족	
강규성	1,560,000
강신애	120,000
강우정.강진	61,671,298
강일로	1,272,541
강정원	1,200,000
강혜민	1,600,000
고미숙	1,200,000
고성산	115,000
고아라	52,500
고진주	240,000
곽규상	1,730,000
구광면	500,000
구성빈	300,000
구성연	300,000
권경만	2,110,000
권관희	120,000
권민주	240,000
권순범	630,000
김남준	240,000
김덕원	420,000
김덕현	630,000
김도경	1,200,000
김동준	120,000
김량헌	1,050,000
김미숙	325,000
김미영	120,000
김병수	180,000
김봉재	150,000
김상일	120,000
김선준	120,000
김성	120,000
김성경	3,400,000
김성호	480,000
김세미	120,000
김세원	240,000
김세진	120,000
김승민	20,000
김승호	1,200,000
김영직	70,000
김웅기	1,340,000
김유진	100,000
김은실	140,000
김은영	390,000
김은호	3,900,000
김인화	1,940,000
김장호	240,000
김정숙	1,380,000
김정원	1,200,000
김정원	1,200,000
김조자	10,000,000
김중완	3,170,000
김지성	80,000
김창원	3,700,000
김창현	107,500
김춘하	120,000
김태규	1,200,000
김현광	1,200,000
김현동	1,030,000
김현욱	1,200,000
김형미	1,200,000
김형중	120,000
김혜성	120,000
김희수	1,650,000
도영훈	2,400,000
류은미	120,000
문무열	200,000
문석현	500,000
문지예	150,000
문행자	220,000
민경은	150,000
박남일	120,000
박덕자	120,000
박묘서	120,000
박선	5,400,000
박성범	670,000
박성환	1,000,000
박인혁	930,000
박재진	360,000
박주양	120,000
박준기	160,000
박태수	2,400,000
박태용	240,000
박현희	600,000
방진희	360,000
서광철	120,000
손정수	200,000
손정은	25,000
신금주	680,000
신재윤	390,000
신지수	1,080,000
안미란	480,000
안수자	120,000
안정선	1,800,000
안현미	200,000
안호	240,000
양승원	120,000
양윤식	60,000
양희정	1,070,000
오에스더	10,295,200
강혜정	4,053,696
오윤선	900,000
오은주	1,200,000
오철송	240,000
요시다고조	120,000
원영희	2,200,000
유다운	390,000
유미나	1,130,000
유성현	240,000
유수연	590,000
유정선	3,420,000
윤경민	20,000
윤명섭	110,000
이강동	2,680,000
이광삼	1,100,000
이기훈	150,000
이문자	120,000
이민규	1,000,000
이복남	840,000
이상일	210,000
이성아	720,000
이소연	300,000
이소정	900,000
이승영	120,000
이은광	1,610,000
이은주	600,000
이인영	10,000,000
이종숙	1,000,000
이종우	120,000
이지희	120,000
이한영	450,000
이호섭	720,000
임경미	30,000
임상현	10,000
임지영	2,700,000
임현필	202,500
임환석	1,150,000
장경순	120,000
장길정	220,000
장성희	1,000,000
장원경	120,000
장인순	1,200,000
장정순	600,000
장지순	240,000
전광선	120,000
전귀선	120,000
전영천	100,000
전영호	367,700
정보미	90,000
정순례	1,200,000
정순애	300,000
정영은	260,000
정은상	130,000
정지용	150,000
정진애	1,000,000
정해덕	3,400,000
정휘진	2,230,000
조아라	150,000
조영채	110,000
조윤경	4,220,000
조현진	1,200,000
조형섭	120,000
조혜경	1,200,000
진경선	100,000
진달래	210,000
차치우	1,000,000
최미영	30,000
최민주	10,000
최사랑	630,000
최선희	3,050,000
최영태	2,400,000
최육열	1,730,000
최은희	1,200,000
최지연	180,000
최지은	2,250,000
최혁인	10,000
추연진	240,000
하희수	140,000
한상만	240,000
한영수	800,000
한요게벳	360,000
한정숙	240,000
한진호	1,590,000
허윤민	120,000
현우석	1,200,000
홍설자	4,000,000
황찬범	25,000
부설기관	
강진아	600,000
권정아	360,000
권효진	360,000
길준호	120,000
김령오	120,000
김미화	300,000
김선화	360,000
김수진	90,000
김승옥	1,800,000
김신덕	1,850,000
김옥준	120,000
김은솔	360,000
김은지	90,000
김주은	330,000
김지은	120,000
김태연	100,000
김현애	360,000
김화영	2,100,000
문유나	110,000
박미선	460,000
박미애	360,000
박선경	300,000
박연희	600,000
박제하	120,000
박천순	270,000
백예나	60,000
변송이	330,000
변윤영	360,000
서애진	30,000
서영숙	600,000
서혜란	360,000
송애솔	360,000
신영자	2,900,000
안미희	2,100,000
여미희	600,000
오동준	1,800,000
오윤아	120,000
위소진	240,000
유정현	360,000
윤보배	80,000
이다솜	360,000
이선정	360,000
이인경	6,300,000
이지연	600,000
이효빈	240,000
임재택	120,000
임지혜	330,000
임희주	210,000
장나혜	360,000
장수진	360,000
장지영	300,000
전안나	240,000
정나나	1,600,000
정미옥	330,000
정혜란	60,000
조지선	1,300,000
지은미	30,000
지주나	1,200,000
차건	1,800,000
차도영	120,000
최미정	90,000
최선영	80,000
최은혜	60,000
탁지혜	360,000
한송이	240,000
허성보	120,000
호한나	90,000
홍옥주	240,000
권선제일교회	
권선제일교회	750,000
이상규	120,000
동광교회	
김복례	120,000
김영란	120,000
배윤.김현진	80,000
이은지	90,000
한미희	120,000
밀알교회	
서효정	120,000
비전교회	
장석원	360,000
삼일성서교회	
김초롱	120,000
삼일성서교회	700,000
오성군	120,000
정혜란	120,000
진재호	120,000
한금순	120,000
서문교회	
강선애	110,000
박경자	120,000
서문교회	8,646,000
윤인호	120,000
임용주	120,000
정찬수	180,000
석계제일교회	
오활란	160,000
이재순	10,000
채용문	120,000
성서대학교회	
강경혜	120,000
김봉춘	120,000
김지우	50,000
배은미	10,000
변경선	240,000
성서대학교회	113,260,000
오경원	120,000
이가은	120,000
이노선	10,000
이대영	120,000
이대한	120,000
이정철	120,000
이지선	50,000
이지수	120,000
이진호	120,000
임숙정	120,000
한정애	500,000
수원교회	
강동형	120,000
김미영	120,000

2019년 1월 – 12월까지 기부자 명단

성 명	기부액
김상오	70,000
김일섭	120,000
반요셉	180,000
정유광	90,000
홍성호	120,000
이레교회	
손미희	120,000
이채은	120,000
장자교회	
권정숙	220,000
장자교회	600,000
주향교회	
유병우	120,000
정우진	240,000
주향교회	1,360,000
중앙성서교회	
곽해	120,000
김덕규	360,000
김세현	120,000
김옥자	380,000
김윤규.신인자	1,200,000
김재혁	90,000
김정희	120,000
김종구	600,000
송인숙	2,200,000
신영옥	240,000
오근수	240,000
우용식	20,000
이수병	240,000
이승학	120,000
이준구.안춘자	240,000
이혜선	1,750,000
중앙성서교회	7,000,000
구제위원회	2,880,000
권사회	600,000
바울선교회	1,150,000
원로 · 은퇴장로회	550,000
최경자	120,000
최영란	120,000
최영숙	120,000
한금례	600,000
한상욱	500,000
현희철	1,200,000
황인돈.김순자	1,440,000
퇴계원제일교회	
유숙자	50,000
유재란	120,000
차형미	10,000
퇴계원제일교회	1,200,000
평원교회	
성경아	120,000
평화교회	
김광석	1,350,000
안종민	110,000
평화교회	1,100,000
풍암교회	
유금례	110,000
윤은정	110,000
함평대동교회	
김희경	120,000
효성교회	
김양례	200,000
문경녀	30,000
박자근	10,000
오혜숙	120,000
유순남	40,000
정인숙	30,000
진경숙	90,000
진은숙	90,000
진효숙	110,000
한옥경	10,000
홍성일	50,000
일반	
SUE HONG	300,000
CRAWFORD	
강덕희	146,770,975
강보경	100,000
강순숙	100,000,000
강한성	600,000
구필례	120,000
권숙영	120,000
권영욱	120,000
권창석	120,000
김균태	120,000
김기수	120,000
김대성	120,000
김동우	100,000
김명호	120,000
김미라	120,000
김미수	360,000
김배숙	100,000
김범설	120,000
김범준	120,000
김승애	70,000
김양권	120,000
김에스더	20,000
김유벽	120,000
김유진	30,000
김윤숙	240,000
김은경	120,000
김은비	40,000
김인호	120,000
김종환	240,000
김진영	120,000
김천수	120,000
김하람	240,000
김효정	110,000
남명우	1,879,722
노신희	100,000
류경인.지수	1,156,748
류계현	120,000
류동원	1,200,000
류찬성	120,000
무명	865,160
문해영	70,000
문홍대	50,000
박경혜	1,200,000
박미숙	120,000
박순정	3,600,000
박영미	110,000
박영해	100,000
박영희	120,000
박은영	516,000
박지성	120,000
박해숙	120,000
서병준	240,000
석지현	600,000
소아름	120,000
송수용	120,000
심재순	30,000
안애숙	90,000
오경희	90,000
오미라	120,000
오미선	60,000
오미애	100,000
오현숙	120,000
원영훈	110,000
위샐러듀	120,000
유제범	20,000
유해연	120,000
유화실	120,000
윤주원	120,000
윤주하	120,000
이경숙	43,000
이관헌	110,000
이기안	200,000
이기운	100,000
이미경	600,000
이민우	70,000
이성희	120,000
이수진	60,000
이우윤	120,000
이원주	120,000
이유진	120,000
이일신	240,000
이정님	3,000,000
이천화	600,000
이현수	120,000
이혜숙	120,000
이호정	120,000
이환희	10,000
임화경	10,000
장명웅	120,000
장문석	360,000
장병길	180,000
장순옥	30,000
장지화	90,000
전은재	100,000
정주아	240,000
정지수	110,000
정형채	200,000
조동빈	120,000
조목장	120,000
조언상	120,000
조여원	120,000
조은채	60,000
조은해	120,000
조준성	30,000
조준우	30,000
주은자	600,000
진윤승	120,000
차인숙	600,000
최경숙	120,000
최국열	200,000
최범식	120,000
최병규	1,200,000
최서영	120,000
최은실	120,000
최인숙	120,000
최지연	240,000
하경국	120,000
한동선.이영실	2,000,000
한상은	120,000
한현숙	500,000
한희경	150,000
허정안	240,000
홍춘호	240,000
황영수	120,000
단체 및 기관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7,570,000
(재)연당장학회	2,000,000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5,360,000
(주)대우노즐	120,000
(주)라이브텍	1,000,000
(주)삼삼전기관리공사	240,000
(주)삼현미디어	120,000
(주)소원기건	2,400,000
(주)아이앤유니	600,000
(주)엘리트코리아	240,000
(주)이레E&C이레디자인	1,000,000
KRX국민행복재단	3,000,000
가성교회	1,100,000
강남임마누엘교회	330,000
경성교회	10,300,000
교수부	2,237,000
구리성광교회	3,400,000
구리중앙교회	1,200,000
국민은행 상계동지점	20,000,000
금곡광염교회	350,000
김예수사랑교회	120,000
꿈꾸는교회	120,000
노아인터내셔날	2,700,000
녹수교회	2,473,000
농어촌희망재단	5,000,000
다드림교회	600,000
대광교회	4,2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100,000
더웨이채플 청담교회(무명)	200,000
도봉성산교회	300,000
도서관	326,000
도서출판현문사	1,400,000
동두천성실교회	110,000
동서환경(주)	1,000,000
동신자원	200,000
두암산업(주)	1,200,000
만나교회	1,200,000
맘키즈푸드	120,000
모퉁이돌선교회	2,825,000
문양교회	80,000
미사목민교회	350,000
복음제일교회	682,000
부천성수교회	80,000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1,500,000
사회복지법인 성민	1,000,000
삼일교회	100,000
삼일교회(용산)	80,000,000
상록교회	1,200,000
상일교회	550,000
새샘교회	410,000
새중앙교회	500,000
생명샘교회(성주)	1,200,000
서부중앙교회	2,400,000
선교기부금	13,230,000
섬기는교회	360,000
성남시장학회	1,577,500
성복중앙교회	240,000
성수시온교회	4,000,000
수정교회	500,000
신작교회	300,000
신창제일교회	1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10,340,000
열방교회	240,000
열방교회	3,225,000
염창중앙교회	3,600,000
영주교회	1,000,000
예랑회	500,000
예수꿈사랑교회	120,000
오감발달연구소	1,200,000
우리교회	390,000
우리침례교회	1,049,442
우리회	237,000
월계성서교회	140,000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210,000
이음기업	110,000
인평교회	500,000
일동성서교회	600,000
제트전기	100,000
주님의교회	440,000
천성교회	600,000
첼튼햄장로교회	2,239,280
총학생회	300,000
충은교회	600,000
태광성서교회	360,000
평안교회(응암)	240,000
푸른동산교회	360,000
하나금융나눔재단	5,000,000
하늘누림교회	600,000
하이플랜종합 건축사사무소	10,000,000
학부모회	1,000,000
한국여약사회	500,0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4,000,000
한국장학재단	3,000,000
한민제일교회	3,300,000
한샘교회	1,000,000
행복한교회	120,000
행전교회	600,000
향기나무	600,000
합계	**1,155,006,566**